

LS그룹,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 기탁



새해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유·청소년 교육과 환경개선에 쓰일 것

LS그룹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LS 안원형 부사장은 서울 세종대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를 1도라도 올리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사회 유·청소년 교육과 소외 및 취약 계층의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

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 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S그룹은 지난해 11월 LS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김치 1만여포를 직접 담궈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文대통령께 하지 못한 질문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는 실수를 범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게다가 소속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질문의 본질에 대한 평가와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K기자의 질문 내용 역시 비판받을 것은 없었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등 떠나 할 것 없이 현장에선 모두 '죽겠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방향전환 없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3대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하는지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대목임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가지 의문이 더해졌다. 지금 행정부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2기 경제팀이 출발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도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똑심있게 밀고나가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기업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았던 기자에게 기자회견 당일 질문 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대통령님,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언제쯤, 또 어느 정도 나타날지 제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bada@metroseoul.co.kr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던진 한 언론사의 K기자가 인구에 회자됐다. 심지어 K기자의 실명이 기자회견 당일과 이튿날까지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전부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K기자는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지 않고 밀고 나가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말했다.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SNS를 중심으로 호사가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혹평을 하는 쪽에선 K기자가 질문에 앞서 소속사와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두고도 가혹한 말을 보냈다.

기자는 K기자가 사전에 소속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일의 기자회견이 각본 없이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아시아나항공 우체국과 손잡고 마일리지 체크카드 출시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출시

아시아나항공이 우체국과 손잡고 항공 마일리지 제휴 카드를 출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체국과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영현 여객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신대섭 예금사업단장, 마스터카드 최동천 대표가 참석했다.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는 우체국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로 기본 적립과 특별 적립으로 나누

어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특별 적립 대상은 ▲쇼핑 ▲편의점 ▲커피 ▲면세점 ▲영화 ▲우체국서비스 업종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 시 1500원당 1마일리지 적립과 더불어 5%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어 여타 마일리지 적립 체크카드보다 우수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시 2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이 된다.

한편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보너스1000마일 제공, 하와이 2인 여행패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키지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돌아갈 수 없으니 더 안타까움. 60년생 욕심 많은 사람은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72년생 된다하고 강하게 밀고나가야 정말로 된다. 84년생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고 돼지를 사러 가야 할 터.	말	54년생 집 씌어 나간사람 함흥차사(咸興差使). 6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78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간다. 90년생 마음에 드는 이상의 유혹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
소	49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61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분풀이해야 할 듯. 73년생 흉탄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85년생 좋아도 싫어도 금방 표현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호랑이	55년생 가족과 대화 중 불화를 조심. 6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79년생 하늬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9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호랑이	5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니 주의. 62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74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86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원숭이	56년생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한 날. 6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80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이다. 92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으니 조금 참아야 한다.
토끼	51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잠시 휴식. 63년생 가장 가까운 아내와 멀어지는 날. 75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87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우선 모면하자.	닭	57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69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더 커 보인다. 81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93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곳이 보인다.
호랑이	52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서 하는 여행. 76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88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언제나 도망가는 것은 자신.	돼지	58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7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82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94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데니 갈증이 생긴다.
뱀	53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하다. 6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반드시 더러워지기 마련. 77년생 자식 자랑을 실컷 하는 날. 89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돼지	59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말을 조심. 7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한다. 83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 95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올 것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9	4
2		6			3		
	7	3	9	8			
		2	5		3	7	
		4	6		1		
		3	8		7	6	
			4	7	2		3
		9		5			6
1	2		3				5

	8	9			4	7	
5					3		2
3				2			1
	9			1			
		7	3		6	2	
4				9			3
					6		
							5
2			8				9
	3	1					4

스도쿠 정답

5	8	9	6	7	2	1	4
9	2	5	8	1	6	3	7
1	6	3	2	4	9	5	8
6	2	9	4	8	5	1	3
8	5	1	6	9	2	7	4
8	7	4	5	1	3	9	6
2	9	5	8	6	3	4	7
4	1	8	7	5	9	8	6
7	6	8	1	2	4	5	9
7	6	8	1	2	4	5	9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신년(新年)하례

'설'은 그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마 '설익다'라는 동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익지 않은 의미 또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토박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이했거나 한 해가 가고 새로 오는 또 한 해의 시작하는 의미로서 설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내려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단(元旦)·원조(元朝)·정조(正朝) 등이다. 뭔가 기준점을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새로이 시작하는 해에는 사람들은 낫았던 지난해의 근심은 사라지고 바라는 바 희망찬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게 된다. 필자는 근하신년(謹賀新年)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상서로운 한 해를 기약하며 서로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궁궐이나 일반 민가 모두 신년하례를 행하는 굳건한 풍습과 전통이 있어왔다. 아쉽게도 언제부터가는 신년하례를 그저 정치인이나 큰 회사의 임원들처럼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만 같아 서운하기도 하다. 좋은 전통들이 점점 부차대한 것으로 여기는 듯해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신년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큰 듯하다. 신정 때보다는 음력 설 때에는 용(龍)자나 호(虎)자를 때문에 붙이곤 했다. 집안에 있을지 모르는 액운을 쫓아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입춘 때나 정월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신년 운수를 점쳐보기도 한다. '홍수맥이'다 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흡수나 있을지도 모를 액운을 막고자 호마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이러한 신년의 풍습들은 모두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인 것이니 액운은 제하고 복은 흘러 들어오기 바라는 마음이다. 서양인들은 별자리 운세라 하여 점성술을 통해 운을 점쳐보기도 하지만 사주명리학만큼 미래 예측의 표본이 세세하지는 않은 듯하다. 게자리니 전갈자리니 해서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운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나라와 사회와 모든 가정이 근하신년이 되시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25호